

■ 『동유럽 선진 사례 습득 및 우리구 정책발전을 위한』

복지도시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 ❖ 문화관광대국으로 성장한 동유럽 국가의 역사문화의 보존과 도시경관관리에 대한 시찰을 통한 우리구의 정책발전 방향을 모색
- ❖ 소각장등 친환경사례 ,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례를 비교분석을 통한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I

연수개요

① 목 적

- 문화의 세기에 유구한 역사와 훌륭한 문화유산을 각종 새로운 문화관광 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문화관광 정책과 문화유산 관리실태 ,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의 개발 실태 등에 대한 비교 견학
- 세계적인 화두인 「 저탄소 녹색성장」의 흐름에 발맞춰 해외 선진 문화도시의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소각장, 등 친환경사례 등을 파악하여 우리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도시 건설에 기여
- 선진국의 우수사례에 대한 시찰을 통하여 우리구의 현안사항과 접목하여 서구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② 기 간

○ 2015. 11. 08~ 11. 15 (6박 8일)

③ 방문도시 및 기관

국 가	도 시	방문지역(기관)
체 코	프라하	ZEVO (쓰레기소각장) SBERNY DVUR(쓰레기분리수거장)
오스트리아	비엔나	DIE WIENER STADTGARTEN (시티가든시설)등

④ 시 찰 단

○ 구성인원 : 총 10명 (의원 7명, 사무국 직원 3명)

직책	성명	영문성명	비 고
부의장	심우창	WOO CHANG SHIM	단장
위원장	이한종	HAN JONG LEE	위원장
부위원장	김용인	YONGIN KIM	위원
의 원	이종석	JONG SUK LEE	위원
의 원	전재운	JAE WOON JEON	위원
의 원	최규술	GYU SOOL CHOI	위원
의 원	최영숙	YOUNGSUK CHOI	위원
전문위원	안기운	KIUN AN	총괄수행
직 원	홍정표	JEONGPYO HONG	수행
직 원	박은경	EUN KYONG PARK	자료수집

5 일정 및 시찰내용

방문일정	11.8 ~ 11.11	11.12 ~ 11.14
방문국	체코	오스트리아
방문도시	프라하	비엔나
방문기관 (지역)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EVO (쓰레기소각장) ○ SBERNY DVUR (쓰레기분리수거장) ○ 신시가지 (프라하시) ○ 바츨라프 광장 ○ 카를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E WIENER STADTGARTEN (시티가든시설) ○ 훈데르바서 쓰레기 소각장 ○ 자전거도로 ○ 찰즈부르크시

II

방문국가(도시)별 시찰내용 및 시사점

체코(Czech)

□ 체코 일반현황

- 국명 : 체코공화국(Czech Republic)
- 수도 : 프라하(127만명)
- 인구 : 1,063만명('14.7)
- 면적 : 78,864km²(한반도의1/3)
- 민족:체코인(95%), 슬로박인(3%), 기타(2%)
- 종교 : 카톨릭(39%), 프로테스탄트(4%), 무교(40%), 기타(17%)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 : 양원제(하원 200명 및 4년 임기, 상원 81명 및 6년 임기)

체코의 역사

체코는 1993년 1월1 일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분리된 공화국이다. 북서쪽과 서쪽은 독일 남쪽은 오스트리아 남동쪽은 슬로바키아 북동쪽은 폴란드로 둘러싸인 내륙 국가이자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1918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제국이 붕괴되자 보헤미아 모라비아 슬로바키아 지방으로 이뤄진 체코슬로바키아는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는 1939년 2월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되고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소련은 이 지역을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공산당이 주도하는 친소정부가 들어서고 1968년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리는 개혁운동이 일어났지만 소련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무산됐다.

1989년에는 소련이 붕괴되며 독립국가연합이 만들어지며 체코슬로바키아에도 변화가 생겨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리 독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1993 년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각각 새로운 독립국가로 재 출발하게 되었으며 총성 없이 이뤄진 이와 같은 분리를 세계의 언론인들은 벨벳이혼이라고 부르고 있다

1 체코 수도 - 프라하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동구의 파리북쪽의 로마등으로 불리어 지고 있다. 프라하는 세기말 보헤미아 왕국수도가 된 이후 천년이상의 중세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신비의 고도이다.

도시 전체가 아름답고 다양한 건축양식의 건축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건축문화의 보고이며 유럽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프라하는 문화의 도시로 유명하며 특히 음악과 문학 분야에서 훌륭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체코의 위대한 작곡가인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안토닌 드보르자크 레오슈 야나체크를 기념하는 음악제가 매년 봄 축제 때 개최되며 프라하가 자랑하는 관현악단인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다.

한편 프라하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로는 프란츠 카프카 라이너 마리아 릴케 야로슬라프 하셰크 등이 있다.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은 중부 유럽에서 가장 유서 깊은 카렐대학교(1348) 이다.

프라하는 티코 브라헤 요하네스 케플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들이 활동했던 도시로 그 전통을 이은 과학연구활동이 체크 과학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 아카데미와 음악 아카데미도 있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버스가전차 지하철이 있으며 철도가 방사상으로 뻗어 있다.

블타바 강에서는 여객선이 운항되며 근처루지네에 국제공항이 있다.

2 구시가지 광장

구시가지 광장은 10세기 이래 늘 프라하의 심장부와 같았던 곳으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이자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 각종 건축양식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장이기도 하다 이 곳은 특히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계속되는 활기찬 분위기와 프라하 역사에 길이 남을 주요사건들의 발생지로써 더욱 잘 알려져 있다

1422 년에 행해진 성직자Zelivsky 의 처형장소이자 1918년 민족 해방을 위한 투쟁 등을 벌인 애환이 깃든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지도자 안 후스의 동상이서 있는 구 시청 광장에는 유명한 천문시계가 있다 위 아래 두 개의 원으로 되어있는데 매12 시간 종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사제 모습의 인형이 회전하며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시계 꼭대기의 닭이 우는 것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었다.

3 체스키 크롬로프

체코공화국의 남동쪽에 자리한 중세의 성도시인 체스키 크롬로프는 인구 약 1만5000 명의 작은 도시로 체스케 부제요비체에서 남쪽으로25km 떨어져 있으며 블타바강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강은 남쪽으로 보헤미아,오스트리아, 바바리아를 서로 분리시키는 슈마바(Sumava) 산 아래에서 S자형으로 흐르고 있다 .

13세기의 한 지주가 이곳에 성을 건설하면서 이 도시의 역사도 시작됐는데 이미 700 년의 역사가 흘렀으며 중세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다

붉은 기와지붕의 중세적인 건물들과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고딕 양식의 성 바로크와 르네상스 등 중세의 미술양식이 섞인 정원들 등이 그것이다 .

이 도시가 가장 번성했던 때는 14~17세기 초까지의 기간이며 그 후 , 18세기에 슈바르젠베르그 의 소유를 마지막으로 공산정권 (Schwarzenberg)하에 도시가 속하게 된다.

성아래로 구시가지가 발달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도시의 중심

으로 각종 ,상점과 박물관 등이 늘어서 있으며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1992년에 프라하 성 요한 네포묵 순례교회 쿠트나 호라 호란 비체 등과 함께 보헤미아 땅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체스키 크롬로프 성 전경) (세계유네스코 지정 구시가지 전경)

프라하 현장 시찰

1 ZEVO (쓰레기 소각장)

대표자 Radim Mana Tiskový mluvčí

- 헝가리 최대의 민간 쓰레기 처리장으로서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하며 소각장 규모를 적정히 유지하며 가동률을 높이며, 고도의 소각처리 기술을 도입하여 다이옥신의 유해성 문제를 해결하며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며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고 있다.

- 2001년 입찰과정을 거쳐 프라하시와 10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하청 업체와 협력하여 프라하시의 시민 생활 폐기물, 기업 생산 폐기물 등을 수거 폐기 소각하고 있다.

기본설비로 폐기물 수거차량, 폐기물 저장소, 폐기물 운반시설, 소각로, 잔류물 회수장치, 보일러등 열에너지 회수장치, 대기오염 방지용 가스 세정기, 소각재 회수 장치, 집진장치, 가스 배출용 굴뚝 등이 있으며 저장조의 크기는 평균 2일분의 작업량을 저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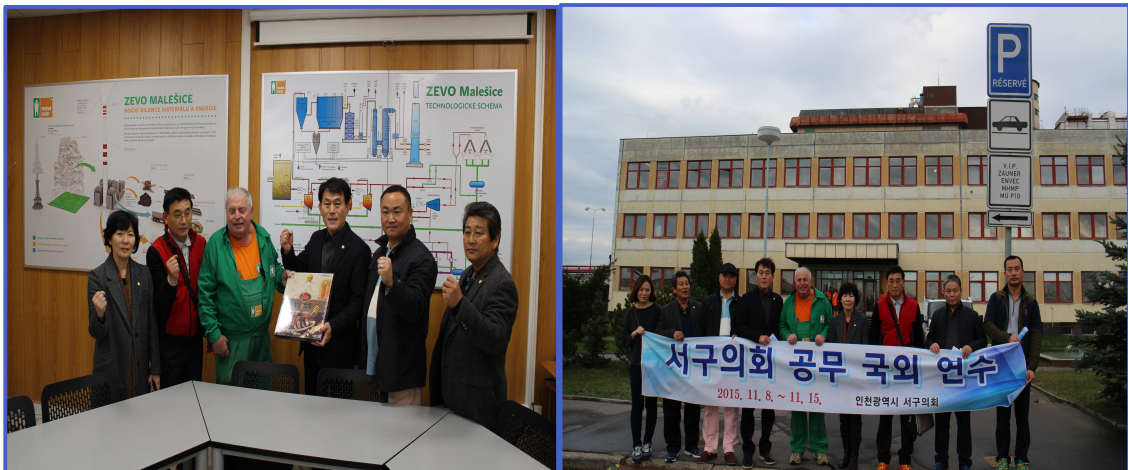
세정기를 통과하는 연소 가스에는 석회를 분사하여 가스에 함유된 이산화황(SO₂)과 산성 가스를 중화시킨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로는 증기 터빈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기를 얻거나 근처의 주택, 건물등에 공급하는 난방열과 온수에 이용되기도 한다.

- 주요 업무로는 0 수집 및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폐기물의 완전한 제거를 보장 - 차량관리 / 폐기물 스트립의 관리, 정렬센터 - 플라스틱, 종이, 유리, 테트라 팩 배달 제거 혈관 교체, 폐기물 관리에 관한 보고서, 수집의 생성과 관련하여 경제계획 구상,- 전사 스테이션의 구성 및 동작 - GPS 기술의 가능성을 최대화

0 에너지 회수로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에 대한 제안 및 기술 평가 에너지 회수를 위한 새로운 시설의 건설에 협력,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한 완전한 운영 데이터 관리 기능을 보장하고 - 재료와 에너지 균형 소재와 새로운 기술, 참조 검사의 현장 테스트에 상담 계약 조건과 입력 및 보증의 정의 관리, 기획 및 컨설팅 폐기물 샘플링 및 유해성 평가하며 - 준수 보고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생산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보고 시스템에 보고 폐기물의 관리 계획을 한다. 0. 도로의 유지관리기능으로, 시스템을 설정하여 겨울과 여름의 유지 보수 디지털 지도의 사용 및 자동 제어 작업 프로그램 도입 온라인 추적에 대한 조언 및 평가 시스템 공동 활동

0. 지역 연계활동으로 매년 재활용, 폐활용 관리, 물 기술, 정화 및 생태를 주제로 청소로 수집, 분류, 에너지회수, 폐기물 처리분야에서 도로, 녹지와 교통 표지판의 유지 보수를 지역 사회 및 상업 활동과 연계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갖춘 박람회 개최하며,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전통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서비스로 방문객을 위한 동화, 대회, 노래 춤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엔터테인먼트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진행, 시민을 위한 잡지 발간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

□ 현장방문 사진



2 SBERNY DVUR (쓰레기 분리수거장)

- 헝가리 최대의 민간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다.
- 폐기물 관리 공단으로 최종 폐기물 복구 또는 폐기물의 처분에 원산지 지점에서 수집 상태 관리와의 협상 물관리 부문에 녹색의 유지 보수를 포함하여 기술적 수단, 작성 및 기록 유지, 청소 및 회사의 구내 도로의 유지 보수, 공급의 보안을 통해 제거 처리, 안전하게 유해 폐기물 및 전자 폐기물 처리, 도로와 정원의 유지 관리, 폐기물 에너지 회수 장치 작동 등 친환경 정책사업에 일조하고 있다.

□ 현장방문 사진



□ 시사점

-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은 당면한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의 필요성을 새로운 차원에서 만족시켜줄 수 있다.

또한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녹색 성장을 통해 인류는 생태계 생물종과 유전자 다양성을 포괄하는 생물, 다양성을 가꾸고 보존하여 생명의 균형을 유지하고 더불어 경제적, 번영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금석은 쓰레기분리수거의 선진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인천서구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체코의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사례를 특히 쓰레기분리 및 소각 등 우리구의 환경에 맞는 적극적 신재생 에너지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프라하 현장시찰

0 신시가지 :

프라하 국립박물관에서 구시청사 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 일대를 신시가지라고 함. 1348년 보헤미아 왕이었던 카를4세가 프라하 신시가지를 계획하였음.



(프라하 시의 아파트)



(프라하 시의 단독주택)

0 바츨라프 광장(Václavské náměstí) :

신시가지 중 바츨라프 기마상이 서 있는 곳을 바츨라프 광장이라 함. 바츨라프는 체코의 영웅으로 칭송되는 인물로, 10세기경 보헤미안 기사들과 함께 적군을 물리치고 체코의 국난을 극복했다고 함.

체코 민주화의 상징인 '프라하의 봄'이 일어났던 현장임.

여기에서 수많은 체코의 젊은이들이 소련에 대항하여 자유를 외쳤고, 이를 기념하여 당시에 분신한 두 명의 청년 사진과 기념수가 바츨라프 동상 앞에 있음.

동상 남쪽으로 750m 정도 길게 이어진 길 양쪽으로는 각종 상점과 레스토랑 등이 입지하고 있고 광장 양편에 중·소규모 상업·업무·문화시설이 입지함으로써 광장에 활력을 일으키고 있으며, 중앙에 영구 녹지대를 조성하여 불법 점유 등도 사전에 방지하고 있었음.

0 카를교(Karlův most) :

1357년 카를4세 때 건축을 시작하여 1402년 완공된후 오늘에 이르고 있음.

12세기에도 목재교가 같은 위치에 있었으나 강이 범람할 때 붕괴되어 12세기 중엽에 석재교로 대체되었으며 이 석재교 또한 홍수로 붕괴되어 오늘날의 카를교로 다시 건설된 것임.

516m의 길이에 16개의 교각과 3개의 교탑(橋塔)이 있음.

이 교탑에는 바로크 시대(18세기)에 만들어진 30개의 유명한 조각상이 위치하고 있어 카를교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Mat0as Braun과 E. M. Brokoff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



(까를교 전경)

대통령의 관저가 시민과 친숙한 공간이라는 점이 특이하였으며, 프라하성에서 바라본 프라하 시가지는 엄격한 도시계획·관리로 역사문화자원과 현대적인 도시개발이 조화된 모습이었음.

유명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케팅이 매우 뛰어났으며, 수변개발 및 프라하시의 도시개발도 이러한 자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었음.



(프라하 성 전경)

■ 프라하 시의 도시계획 시사점

0 구시가지가 프라하 시 전체 고용의 70%를 담당하고 있으나,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도시개발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키 위해 단핵 도시를 다핵 도시로 전환코자 노력하고 있었음.

0 물론 구시가지 등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지역의 재개발시에는 과거 모습·맥락과 조화되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이면서 활력 있는 도심문화를 연출하고 있었음.

이는 바츨라프 광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광장 양편에 중소규모 상업·업무·호텔을 입지시킴으로써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생하고 있었음.

또한 카를교도 프라하 관광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수변공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자원과 도시개발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음.

0 교통에 있어서도 대중교통시설을 다양하게 확충코자 노력하고 있었는데, 지하철, 트램, 자전거 등이 그 주요 수단이었음.

0 프라하 시의 전략계획 중 공간계획에서는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구분함으로써 보전지역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개발지역에 있어서도 저명한 건축가 등을 영입함으로써 그 자체가 향후 프라하의 관광문화자원이 되도록 하였음.

이는 프라하성에서 바라본 프라하 시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색채, 높이 등에서 시 전체가 조화되고 녹지가 확실히 보호되고 있었음.

0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경관에 매우 깨끗하였으며, 건물의 외관 및 간판도 매우 조화롭게 건설·정비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쉬고 싶은 도시, 휴양 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었음.

우리 서구에서도 관광·휴양 자원 중심으로 개발할 경우 이러한 일관된 도시경관 계획·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일반현황

- 국명 : 오스트리아(Austria)
- 수도 : 빈
- 인구 : 8,223,062명('14.7)
- 면적 : 83,871km²
- 종교 : 카톨릭(74%), 개신교(4.6%), 이슬람교(4.3%)

1. 오스트리아 수도 - 비엔나

0 면 적 : 414.89km² (시 전체면적의 50% 이상이 녹지·수변공간)

0 인 구 : 1,731,236인 (4,129인/km², 주거지 기준 11,700인/km²)

0 비엔나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도로써 제1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사회주의 정책이 팽배하여 Red Vienna로 불리었으며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번영한 시기를 맞음.

1960년대 침체기를 거쳐 1989년 냉전 종식이후 현재까지 중흥기를

맞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자 오스트리아의 9개 주(州) 가운데 하나임.

대도시권 인구 240만명의 오스트리아 최대 도시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임. EU에서도 10번째로 큰 도시로 UN이나 OPEC과 같은 국제기구가 입지해 있다.

2,500년 고도인 비엔나의 도심은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09·2010년 머서 서베이에서 세계 수위 도시로 선정되는 등 세계 도시계획계에서도 주요 연구대상 지역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비엔나의 구도심 전경)

영국식 이름은 비엔나, 독일식 이름은 빈(Wien)으로 어원은 밝음, 평평하고 넓음을 뜻하는 고대 켈트어 빈두(windu)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이나 정설은 아니며 이견도 많음.

비엔나 현장 시찰

1. DIE WENER STADTGARTEN (시티가든관리시설)

0 1862년 문을 연 영국식 정원으로 시드니의 800곳이 넘는 공원 중 대표 공원이자 대표적 관리시설로서 인공이 아닌 자연적인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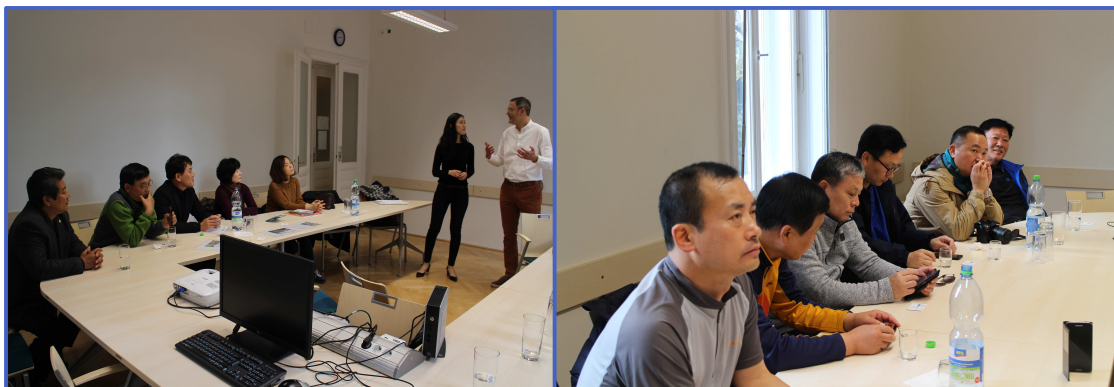
태의 공원이다

0 숲도시 정원사 및 공원, 놀이터, 녹지, 골목길 및 기타지역 “우리의 정원”, 일상적인 유지 보수 및 원예 정제에 주의 기울이며 공원 비전에서 비엔나 공원의 설계와 장비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시설

0. 분야별 업무로는 공원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정보와 교육의 주요 소스로 비엔나 도시에 의해 설립되었고,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유지되며,비즈니스 & 미디어, 문화 및 역사, 환경 & 레저, 건강 및 사회 복지 서비스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0.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또는 광장, 화단 분수 조각등 조경시설, 휴양소, 장의자등 휴양시설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정구장 등 체육 교양시설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유지하고 있다.

□ 현장방문 사진



2. 도시 정원

도시정원의 대표적인 건물인 쾨브른 궁전은 영국식 귀족들의 픽처 레스크식 정원으로 발전하고 오늘날의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인공적이면서 공공적인 정원조성운동으로 발전하는 모태가 됨.



<쾨브른 궁전 전경>

□ 시사점

- 공원 관리면에서도 역사가 오래된 도시답게 도심지내 녹지조성이 모두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도시속에 녹지의 적절한 배치, 녹지공간의 활용에 애쓰며 개발보다는 작은 공간이라도 녹지로 가꾸고자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보임
- 주택가와 그 사이에 형성된 녹지공간이 도시전체를 깨끗하게 보여지게 함.
- 인천서구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더욱 거듭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3. 슈피텔라우 쓰레기소각장 쓰레기 자원화시설

슈피텔라우 쓰레기소각장은 비엔나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으로 우리나라 시각에서는 혐오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이 시내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곳의 쓰레기소각장은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비엔나의 관광명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1987년도 쓰레기 소각로 화재발생으로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2년반 정도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건립할 수 없었지만 1991년 빈 시장 헬무트 칠크 이 환경단체와의 많은 대화와 접촉 합의에 최첨단의 기술을 도입하여 다이옥신이나 위험물질 배출이 국제환경 기준치에 적합할 것과, 쓰레기 소각장의 외장을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모델로 건립하기 위해 훈데르트바서에게 디자인을 맡겼고 그 결과 도심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이 독특한 외관과 화려한 디자인으로 형상화함으로써 혐오시설이 오히려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각장의 입지 또한 인근에 지하철역과 비엔나 상대옆에 위치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어 상당히 인상적이다.

소각장 건설 시에도 제일 먼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좁혀 나가면서, 소각장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1969~1971년 3년간에 900억원정도의 비용으로 소각장이 건설되어졌다.

현재는 1일5 톤 트럭으로 250대의 쓰레기 수거차량이 근거리에서 위치한 빈의 쓰레기를 연간 26만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된 쓰레기에서 나오는 전기와 열을 이용에 달하는 1100km파이프 라인을 통하여 비엔나의 30만 가정에 온수를 공급하며 냉각수는 각 병원과 건물 백화점등에 공급하고 있다 ,

소각로는 각기 2개로 1시간당 소각로에서 15~18톤을 1000도에서 소각하고 있으며 1차 소각로에서 타고난 재는 고체화하여 건설자재로 활용하거나 매립하고 방사능 오염물질인 쓰레기 쿠키는 독일의 소금광산에 보내져 보관 처리하고 있으며 마그네트를 통하여 나오는 철 등은 모아서 되팔고 있다고 한다.

비엔나의 전체 소각장은 총4 개이며 3개는 가정용 1개는 특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 난방라인은 1,100km로 비엔나 주민 소요량의 33% 정도를 해결하고 있으며 개별난방보다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

소각장 소유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통제권을 행사하며 경영 및 운영은 각 민간 위탁회사가 하고 있다 .

소각장은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1년에 3번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훈데르트바서 쓰레기소각장 전경)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는 철제 종이 플라스틱 색있는 병 환병 등 5가지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이 5분 거리 안에 분리수거기가 있어야 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철제 종이 플라스틱 색 있는 병 환병 등 5가지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이 5분 거리 안에 분리수거기가 있어야 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시내 전역에 6,000 여개의 분리수거함을 설치되어 있다.

1년에 약200~300 유로 정도의 쓰레기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쓰레기소각장이 기술적 우수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없다는 인식이 주민들에게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한다 .

□ 시사점

○ 비엔나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오던 쓰레기 소각시설을 도심지 한가운데 세우면서 쓰레기 소각장의 외장을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모델로 독특한 외관과 화려한 디자인으로 형상화함으로써 혐오시설이 오히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테라노바를 지향하는 인천서구가 적극 추진해야 할 모델이라 생각됨.

○ 수십년전부터 생활쓰레기를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원화를 위해쓰레기 소각시설을 만들어 우리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고 발생하는열을 1100km에 달하는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여 비엔나시의 30만 가정에온수를 공급해 주고 있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서구도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식에서 다이옥신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화 시설로 전환하는 쓰레기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비엔나 시민 모두가 쓰레기 발생 시키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갖으면서도 도시내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지 않은 선진 시민의식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쓰레기 소각장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됨.

4. 오스트리아 자전거도로 및 대여시스템 제도

오스트리아 자전거 도로망은 자동차 도로망과 마찬가지로 도시 전역을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가 불편 없이 도시 전체에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별 자전거 여행자들을 위해 자동차와 분리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유로벨로 27개국으로 네덜란드의 암스텔담까지 연결되어져 자전거를 타고 유럽의 각 나라들을 여행할 수도 있다.

▶ 비엔나시 정책 제도 Citybike

Citybike Wien 시스템은 기존의 자전거 대여 시스템과는 확연히 다른 친환경적 이고 혁신적인 대중교통 대체정책의 일환이다

하루24시간 1주7일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이동수단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비엔나 요소요소가 잘 연계 소통되도록 네트워크가 구축 되어 있어 2008년엔 총363,000명이 110만 km 를 이용하였다.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의 비엔나 관광수단으로써도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브뤼셀 낭뜨 파리 코르도바 리옹과 같은 유럽도시들이 자체적인 자전거 정책을 개발하는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다.



(무인자전거 거치대)

(무인자전거시스템 결제기)

□ 시사점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무조건 권장하기 보다는 비엔나시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교통정책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잘 세우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정책을 수립하고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교통체계 확립 자전거 지도 제작 등 자전거 이용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시민의 8%정도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서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의 우수정책들을 벤치마킹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 확충하고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오스트리아 짤츠부르그시

서부 독일의 국경 근처 잘차흐강江 의 양안 兩岸 에 있는 공업도시이다 .

로마시대에 생긴 도시로 8세기에 주교청이 설치된 후 교회령이 되어 가톨릭주교가 통치하였고 가톨릭문화의 중심지로서 발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폭격으로 파괴되었으나 아직도 교회와 궁전 등 바로크 건축의 작품이 많이 보존되어 있어 북쪽의 로마라고 부른다 .

지명은 소금의 산 이라는 뜻인데 이름 그대로 예로부터 소금 산지로서 유명하며 지금도 이곳의 소금이 전국에 공급되고 있고 전쟁 후에는 남서부의 카프른에 유럽 최대급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

W.A. 모차르트의 출생지이며 그를 기념하여 1920년부터 짤츠부르크 음악제가 해마다 여름철에 개최되고 악기 인쇄출판 석재 멘트 양조 등의 공업이 활발하다.

짤츠캄머굿은 선사시대부터 암염을 생산한 곳으로 알려졌고 부근에는 소금과 관계되는 많은 지명이 남아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로서 수도인 빈에서 짤츠부르크 사이에 있는 해발 의 구릉지 , 500~800m에 위치해 있고 이 일대는 해발고도 2,000m이상의 산과 76개에 이르는 호수가 어우러져 있어 그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하여 유명한 관광 휴양지로 발달하였고 특히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을 찍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6. 잘츠부르크의 아름다운 간판거리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 구시가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리로 잘츠부르크의 아이콘이 된 상점 간판이 양 옆으로 늘어선 아름다운 거리이다.

처음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점에서 파는 것을 알려 주는것에서 시작 되었다는데 실제로 구두가 걸려 있으면 신발을 모자가 걸려있으면 모자를 바지가 걸려 있으면 바지를 우산이 걸려 있으면 우산을 팔고 있다.



(우산가게 간판모습)

(시계점 간판모습)

(거리전경)

지금은 예술적인 경지에 오를 만큼 아름답고 예쁜 장식의 간판이 시선을 끈다.

거리의 모든 간판은 한 장인에 의해 보수되고 유지된다고 하니 그들의 철저한 지킴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일관성과 통일성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장인정신이 깃든 거리 오스트리아인들의 넘치는 예술적 끼가 유감없이 발휘된 거리이다

□ 시사점

○ 도시의 중심가에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된 간판은 찾아볼 수조차 없어 불필요하게 전력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도시의 외관을 훼손시키는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간판으로 인해 도시의 이미지가 한층 더 격조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인식을 새롭게 갖게 했다.

인천서구에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과 무분별하게 설치한 광고물을 잘 정비하여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문명 간의 대화, 그리고 깨달음

지난 11월에 중부유럽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공무상 여행이라지만 들뜬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하였다. 솔직히 젊은 시절의 여행이나, 나이들어 가는 여행, 자유 여행, 그리고 기획여행 등 모든 여행은 가슴을 설레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서구의 산적한 현안속에 둘러싸여 치열하게 자치입법을 제정하고 있는 현실이, 좀더 새롭고 근본적인 대안을 갈구하게끔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지방의 문화유산관리와 도심 내 쓰레기처리시설로 유명한 나라인 체코와 오스트리아로의 시찰은 시기 적절하게 다가왔다.

지방의 문화유산관리 측면에서는 프라하의 봄으로 유명한 체코의 바츨라프 광장, 정각마다 10초간의 show를 연출하는 천문 시계탑, 한 편의 시같은 야경의 카를 교, 마을 전체가 박물관인 체스 키르크롬로프 성을 방문했다.

오스트리아에선 명화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인 돔 광장,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는 레지던츠 광장을 방문했다.

이들 장소의 공통점은 사소한 얘깃거리나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모두 관광상품화한다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밝은 내용이 아닐지라도 모두 지역사회에 풍부한 색감을 입히는 데 활용되는 점에서 치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많은 예산을 집행해 문화유산 관리에 힘쓰는 것 또한 인상적이었다.

따지고 보면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이탈리아의 카톨릭 교회 군집, 스위스의 자연경관 등에 미치지 못하는 못함이 분명하지만, 지역 고유의 색채를 잘 꾸며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 서구도 관광명소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도 과거에는 부평, 주안, 자유공원, 월미도 등으로 발길을 향했었다.

이제는 그것과는 다른, 이를테면 드라마 촬영지의 적극적인 상품화 같은 볼거리와 지역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에 시대를 품는 정취까지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아라뱃길을 통한 여러 이벤트나 야경조성을 통해 휴식처 및 데이트명소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쟁력 있는 서구라는 희망을 본 것 같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이 서구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관통하는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이다.

쓰레기처리 기관시설 및 혐오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체코의 열 재생에너지 판매와 유해물질 최소화에 앞장서는 ZEVO(쓰레기소각장), 쓰레기 재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SBERNY DVUR(재활용 쓰레기 선별 처리장)을 방문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선 도심 한 가운데 자리잡은 폐유소각장인 연기 여과시설 E. W. S. (ENTSORGUNGS WERK SIMMERING), 열병합 발전소 F. W. (Fernwarme Wien),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잠들어 있는 빈 중앙 묘지, 수백만 전쟁사망자의 공동묘지를 방문했다.

이들 장소는 하나같이 도심안에 자리잡고 있다.

넘비현상이 없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시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건물을 예술적으로 형성하거나 유해물질 최소화 및 재활처리 연계를 통한 에너지 상품화도 인상적이었다.

또한 이들 협오시설은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다. 광대한 무덤지구는 공원화되어 있으며 교육의 장소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당장 수도권매립지를 품고 있는 우리 서구로서는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었다.

우리 연수단 일행은 이번 동유럽 연수를 통하여 세계적인 안목을 넓혀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데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의 문화와 제도 그리고 많은 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으로 다시 우리 주변을 돌이켜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 해외연수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지 실현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확신하며 구정활동에 접목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 심 우 창